

해양환경 정화사업 성과 거양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최근 전국 단위에서 그동안 수행해 오던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협회는 먼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장군 등 전국 14개 시·군에서 지구 수협과 협력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을 실시, 총 1,150

백만원을 투입, 2,872톤을 수거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 제고와 함께 저비용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해양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구립 28일에는 울릉군 지역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준공하였다. 이

사업은 울릉군 관할 해역 346ha에서 지난해 10월부터 90일간 작업하여 침체어망 98.66톤(계획대비 112%)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사업은 기상여건과 섬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어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 구립 27일 완료

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경상북도 지역 4개군에서 실시한 해안가방치쓰레기 수거 사업도 557여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어촌어항 기초조사 완료

2007년부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최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7개 시·군·구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어촌어항기초조사는 지난해 전국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해외선진 어촌어항 사례 조사 등으로 구분 실시되었다.

기초자료 조사는 어촌 분야에 전국 연안 어촌계 1,951개소(어촌마을 3,871개), 어항 분야는 105개 국가어항, 308개 지방어항, 461개 어촌정주어항, 1,361개 소규모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문사회, 산업경제, 수산업 및 관광 현황 등 40여개 항목의 기초 및 현지여건 ▲자연조건, 피해현황 및 대피실태, 관광수요 등 12개 항목의 어항현황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투자개발 현황과 어촌계별

현황 등 4개 항목의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조사 ▲국토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한 관련 계획 및 현황조사로 분류되어 어촌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 어촌어항개발 정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망

라했다.

협회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계획은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계획 등 어촌어항 관련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매 5년마다 협회가 시행하게 되어 있다.

협회, 어촌문화관광센터(가칭) 설립

어 촌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촌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수행하는 가칭 어촌문화관광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지역 마케팅 및 홍보활

동,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등이다. 또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관리운영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 경영본부 내 문화관광팀을 확대 개편하여 센터로 승격시키고 총괄책임을 질 센터장과 관광 전문가, 온라인 운영 전문가 등을 총원하기로 했다.